대한암한의학회지
J of Kor. Oriental Oncology
Vol. 12, No. 1, 2007;15-24

유방암 여성 환자의 림프부종에 대한 림프배액맛사지의 효과

오수연* · 김현아** · 정광조** · 김정선*** · 조종관*** · 유화승***

*영산대학교 미용예술학과 · **대전대학교 웰니스 아카데미아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동서암센터

Abstract

Effects of Decongestive Lymphatic Therapy for Lymphoedema in Women With Breast Cancer

Soo-Yeon Oh*, Hyeon-Ah Kim**, Kwang-Jo Jung**, Jung-Sun Kim***,
Chong-Kwan Cho***, Hwa-Seung Yoo****

** Department of Beauty Art, Youngsan University · ** Wellness Academia, Daejeon University*
**** East-West Cancer Center,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Objective: We have the purpose of evaluating the effects of lymphatic massage on lymphoedema in breast cancer patients.

Method: The patient who has in condition of lymphoedema after the breast cancer therapy is taken massages with aroma oil for 5 days. We measured the upper arm circumference and edema index before and after the therapy. We also measure the edema index of normal arm to compare with the abnormal one.

Results: We gave 4 patients the decongestive lymphatic therapy and now present the positive conclusion. 3cases of the 4 showed decrease of circumferences and edema index. It means that the edematous condition getting better during these therapy.

Conclusion: Lymphatic massage with aroma therapy may have effectiveness on lymphoedema in breast cancer patients. but further advanced clinical trials are needed.

Key words : Breast cancer, lymphatic massage, aroma therapy

Corresponding Authors : Hwa-Seung Yoo, East-West Cancer Center, Dunsan Oriental Hospital of Daejeon University, 1136 Dunsan-dong, Seo-Gu, Daejeon, Korea Tel: 82-42-470-9132 Fax: 82-42-470-9006 E-mail: altyhs@dju.ac.kr

Ⅰ. 서 론

림프부종은 액와 림프절 곽청술을 포함하는 근치적 수술을 받는 유방암 환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합병증 중 하나로 미용적인 문제나 불안, 우울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뿐 아니라, 육체적 불편함과 관절 가동범위 제한과 같은 기능적 상실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창상치유능력의 저하로 인해 봉와직염, 림프관염과 때때로 림프관육종을 유발하기도 한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이후에 남아있는 림프계에 섬유화를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 림프관이 협착이 발생하여 여과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림프부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림프부종은 대부분 발생 요인에 노출된 후 수개월 내지 수년 후에 서서히 발생하게 되므로 환자에 의하여 증상이 처음으로 발견되며, 일단 림프부종이 진행되면 환자들은 통증과 불편함을 지닌 채 평생을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림프부종 환자는 지속적인 부종과 통증, 그리고 잦은 합병증으로 고통을 받지만, 이 증상들로 인해 일상생활 능력을 제한받고, 외모 변화에 의한 우울과 분노, 불안 등 정서문제, 친구관계와 직업 및 사회적 관계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해져 있다. 즉 오랜 기간 동안 림프부종으로 인해 생긴 관련 장애, 통증, 감염 등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것으로 인해 림프부종 환자의 생활 방식은 상당히 변화되어 있고 취미생활, 직업 등을 포기하거나 거의 가정에서만 지내게 된다. 또한 사람들이 그들의 외모에 대해 당황해하거나 그로 인한 수모를 경험하며, 부적절하거나 값비싼 치료를 받기도 하며, 수많은 의료인이나 비 의료전문가로부터 도움을 구하여도 희망 없음, 우울, 신뢰감 부족 등으로 낙담하기도 한다.

이는 현저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부기는 운동능력과 활동 능력을 방해하고, 통증을 야기하고, 감각을 변화시키고, 인체와 자아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며 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더군다나, 암 치료 후에 이차적으로 발생한 림프부종의 경우 개인의 질환에 대해서 항상 상기하게 만든다.

림프부종은 일단 발생하면 완치되지 않으나, 체계적인 조기 치료와 철저한 자가 관리를 통해서 일상생활은 물론 성공적으로 사회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유방암 수술 환자나 뇌졸중 환자 등 림프부종 고위험환자를 대상으로 림프부종 발생 예방과 조기발견 및 관리에 관한 체계화된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훈련된 전문치료사가 드물고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은 종종 비전문적 치료에 의존하고, 정보부족으로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자가 처치를 시도하기도 한다[2].

그 치료는 아직 는 잘 연구된 분야가 아니다. 림프부종의 관리는 림프계의 울혈을 풀고 흐름을 자극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부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우회 배액 통로를 촉진시키는 원리를 이용한다. 조기의 보존적 치료와 전략의 조합이 일반적으로 권고되는데 여기에는 피부 관리, 운동, 자가 마사지를 통한 단순 림프배액, 수기 림프배액 압력, 교육, 정신적 지지가 포함된다.

향기요법은 필수 식물성 기름을 치료적 용도로 쓰는 것으로, 5000년 동안 시행되어왔다. 현재에는 암 치료와 피부질환 조절에 널리 쓰이고 있다. 비록 림프부종 관리에 있어서 향기요법을 이용한 마사지의 긍정적 효과가 종종 보고되기는 했지만, 문헌적 고찰 상 오직 한 개의 이전 연구만이 림프부종에 대한 향기요법 마사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유방암 치료로 발생한 2차성 림프부종이 있는 여성 8명에게 라벤더 오일로 마사지를 했다. 보고된 결과는 통증 경감, 이완, 자각적 느낌 등 주관적인 평가방법에 집중했으며 이 결과들은 모두 호전되었다. 눈에 띄는 부종의 감소도 또한 보고 되었다[3].

서양의학에서는 마사지, 향기 요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의학적 이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데에 반하여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평가 및 임상적 시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전대학교부속 둔산한방병원에 내원한 유방암 치료 후 림프부종이 발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림프 배액 마사지의 임상시험을 예비연구로서 진행하여 하였으나 예상인원이 모집되지 않은 상태로 임상시험이 종료된 바, 시험이 진행된 4례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시험 대상

2007년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을 내원한 암환자 중 림프부종을 호소하는 유방암환자 4명을 대상으로 림프배액 맛사지를 시행하였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본 시험은 2007년2월23일 IRB에서 통과되었음을 통보받았으며 본 대상 환자들에게 시험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받았다.

1) 조직학적으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임파부종을 호소하는 여성환자
2) 부종상지가 대측상지와 비교해 최소 15% 이상의 체적증가가 있는 환자
3) 암종에 대한 주된 치료 및 보조적인 치료(수술, 항암제, 방사선 등)를 완료한 환자(단 타목시펜 등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포함이 가능)
4) ECOG < 3인 자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부 혹 전이부의 활동성 병변(암종)의 근거가 임상적, 진단방사선적으로 있는 경우
2) 편측의 종양, 액와부 수술, 방사선치료 또는 양측 상지의 부종 기왕력이 있는 경우(반대측 상지의 치료경력은 림프부종과 관련된 과다체적의 평가에 대한 정확성을 감소시킴)
3) 종격동 또는 골반 등 주된 림프절을 포함한 신체부위에 대한 수술적 림프절제 또는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이러한 대체적 림프순환경로의 방해는 이러한 치료법들에 의해 혼동될 수 있다. 단순한 자궁절제(근종수술 등)를 받은 경우는 선정할 수 있다.
4) 상지부종에 대한 마사지치료를 선행한 경우 또는 1개월 이내에 압박붕대를 착용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심장 또는 신장의 부전 등과 같은 비 악성의 심각한 질환이 있어 매일의 치료 및 추적조사가 어려운 경우
6) 영향을 받는 팔의 치료하지 않은 감염 또는 색전 같은 마사지 금기증을 가진 경우
7) 무작위배정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치료시작이 힘든 경우
8) 자의적 동의서 또는 프로토콜의 진행을 수행하기 힘든 정신적 질환 또는 중독성 질환을 가진 경우

2. 치료

4명의 환자 중 처음 1명에게는 매일 30분간 5일 동안 연속적으로 1일 1회 부종부위에 아로마 오일을 도포하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맛사지사의 림프배액마사지를 시행하고 후에 시술한 3명에게는 환측과 건측을 포함한 상체 전체를 마사지했다.

아로마 오일에는 케리어오일 Sweet almond 100cc에 에센셜 오일, Grapefruit 0.7cc, Geranium 0.7cc, Lavender 0.7cc방울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효능은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Specific and relevant properties of the essential oils used in the massage oils.(Lyn Goldberg, 2003)

aroma oil	application
sweet almond	carrier oil that is used most common in England. lubricant that provide skin nutritional components.
grapefruit	lymphatic system activation, symptom of GI tract, sedative effects
geranium	skin disease, anti inflammatory effect, GI tract disease, dry and reddish skin, lymphatic system activation
lavender	immune system activation, sedative effect, healing the wound, myalgia

마사지는 피 시술자를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하고 액와 주변과 견갑골주변, 팔과 손등에 오일을 골고루 도포한 후,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하고 승모근, 광배근을 마사지하고 견갑골부 부착된 근육을 마사지하였다. 이어서 측면자세를 취하게 하고 전거근, 대흉근, 견갑하근, 등을 마사지하였다.(Figure 1) 환자는 치료기간 중 물리치료, 압박붕대 등 림프부종 관리를 위한 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3. 독성

몇몇 아로마 오일을 쓰면서 발생한 접촉성 피부염의 보고는 거의 드물다. 림프부종의 특성상 부종이나 피부 염증이 생길 수는 있다. 환자들은 치료를 위해 접촉한 후 24시간 이내에 발적, 소양감, 염증이 있으면 바로 보고하도록 지시받았다. 또한 환자들에게 마사지를 해서 체액

Fig. 1. massage therapy. A. The patient make a face down position, and the therapist massages the trapezius muscle and the lattisimus dorsi muscle. B. The therapist massages the muscles that attach to the scalpula. C. The patient make a lateral decubitus position, and the therapist massages the muscles that attache to the medial side of scapula. D. The therapist massages the serratus anterior muscle, pectoralis major muscle and the muscles of upper arm.

흐름이 증가하여 두통, 오심, 피로감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고했다.

4. 평가

평가변수로 주 평가변수와 부 평가변수를 정하여 평가하였으며 주 평가변수는 In body로 측정한 상지 부종지수이며 부 평가변수는 마사지 전후의 팔둘레 이다.

'In body'라는 신체조성 측정기로 측정한 상지부종지수의 마사지 전후 변화로 평가하였다.

'In body'는 신체조성 측정기로 다리와 팔에 약 50kHz의 약한 전류를 통하게 하여 신체저항을 측정한 후 회귀방식에 대입하여 총체지방량, 근육량, 총수분량, 기타 신체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을 추정하는 기계이다. 정확하게는 생체전기저항분석법(BIA.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라고 하는데 신체 내 수분은 전해질을 포함하고 있어 전류를 잘 통하여 전기저항이 낮으며, 지방은 수분함량이 적어 전류가 잘 통하지 않아 전기저항이 높은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5. 중지 및 탈락

이상반응이 발생하거나, 시험자의 판단에 의해 시험 진행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치료를 중지하였으며, 중지하여 시험을 완료하지 못하면 탈락되었다. 총 5회의 치료에서 연속 2회 이상, 총 3회 이상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피험자가 탈락된 것으로 보았다. 탈락의 기준은 피험자가 시험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계획서를 위반한 경우,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피험자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치료 중단을 요청한 경우이다. 본 증례 중 중지 및 탈락한 피시험자는 없었다.

6. 결과

[증례 1] 전○○는 32세 여자환자로 2006년 5월경 충남대학병원에서 좌측 침윤성 유관암을 진단받고 2006년 7월 21일 modified radical mastectomy를 시행 받은 후 항암화학치료 완료 후 협진폴리엘가정, 광동타목시펜정을 경구 복용하고 있던 중 2006년 12월 23일 본원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좌측 상지에 통증 및 부종이 있었으며, 제 4, 5 수지에 저린 감각을 호소하였으며 1년 전과 비교하여 건강이 매우 나쁘다고 여기고 있었다. 상기 환자는 오일을 도포하고 상지를 마사지했다. 다음은 시술 전후로 팔둘레 및 상지 체액률을 검사한 결과이다.

상기 환자는 마사지 전후로 하여 팔둘레와 상지 부종지수가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5일간의 수치를 비교해 볼 때 처음 시작한 날이 마지막 시술한 날의 수치에 비해서 팔둘레도 크고 부종지수도 높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런 수치는 건측 팔의 부종지수가 내내 비슷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환측 팔에 시행한 치료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어진다. 또한 건측 팔의 부종지수는 환측 팔의 부종지수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을 치료 내내 볼 수있었다 (Fig.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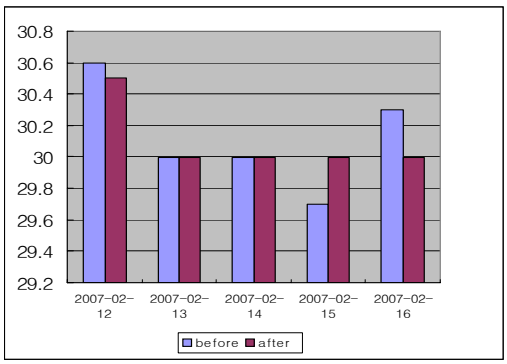

Fig. 2. The effects of the massage on upper arm circumference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massage in cas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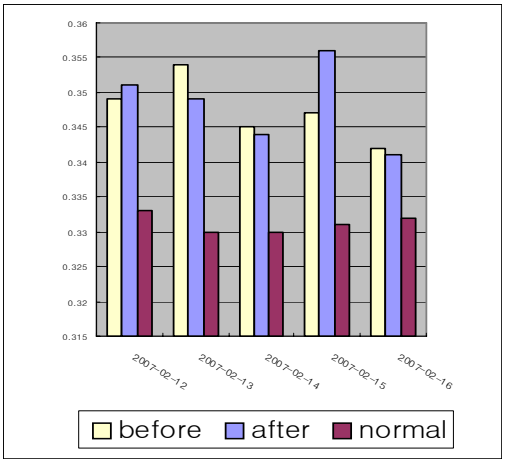

Fig. 3. The effects of the massage on upper arm edema index in case 1.

[증례 2] 이○○는 51세 여자환자로 1991년경 충남대학병원에서 좌측 유방암을 진단받고 액와부의 림프절 절제술을 동반한종양절제술을 시행받고 항암치료를 4차례 받은 후 경과관찰 중 2007년 2월 26일 본원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좌측 상지에 부종이 있어서 착복 시 옷이 스치고 지나가면서 얼얼한 느낌이 들고 불편감을 야기하는 림프부종을 호소하였다. 상기 환자는 오일을 도포하고 마사지를 시행하였으며 다음은 시술 전후의 팔둘레 및 상지 체액률을 검사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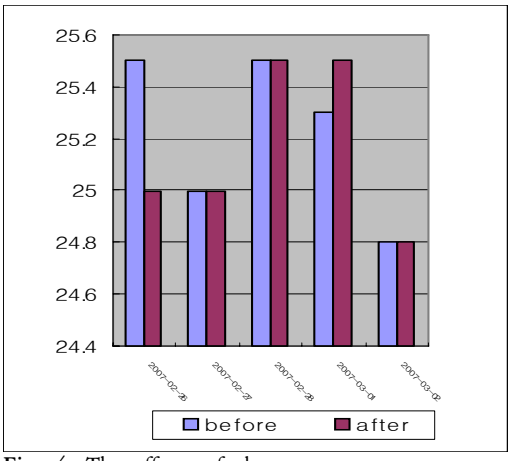

Fig. 4. The effects of the massage on upper arm circumference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massage in case 2.

상기 환자는 마사지 전과 후의 팔둘레에 있어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5일 동안 치료하면서 감소양상을 보이다가 치료 전의 상태로 돌아갔다가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상지 부종지수 비교에 있어서는 경향성을 보기 어려웠으나 이 환자의 경우 건측의 부종지수조차도 일정치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Fig. 4, 5).

[증례 3] 김○○은 2002년 10월 초 서울아산병원에서 우측 침윤성 유방암을 진단받고 breast conserving operation을 시행 받은 후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경과 관찰 중 2007년2월 22일 본원에 내원한 환자이다. 내원 당시 우측 상지 부종으로 양 상지의 저림과 통증을 호소하였다. 상기 환자는 치료기간 중 지속적인 환측 팔둘레의 감소를 보였다. 이 환자는 마사지 전후의 팔둘레 비교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감소양상을 보였으며 부종지수 비교에 있어서도 치료기간 전반적으로 지수 감소양상을 보였다. 다만 건측 팔의 부종지수가 환측보다 낮은 경우도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건측 팔의 부종지수가 일정치 못한 경향을 보여서 건측과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Fig.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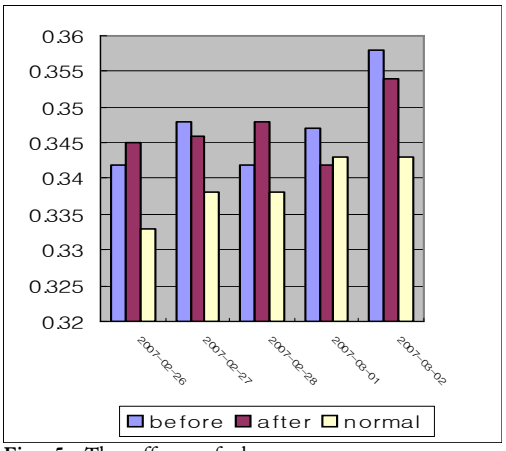

Fig. 5. The effects of the massage on upper arm edema index in cas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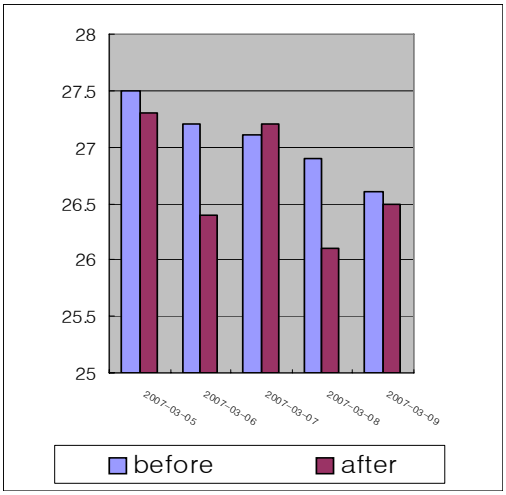

Fig. 6. The effects of the massage on upper arm circumference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massage in cas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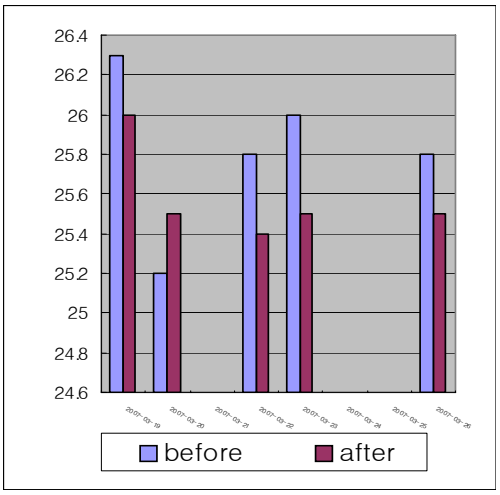

Fig. 9. The effects of the massage on upper arm circumference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massage in cas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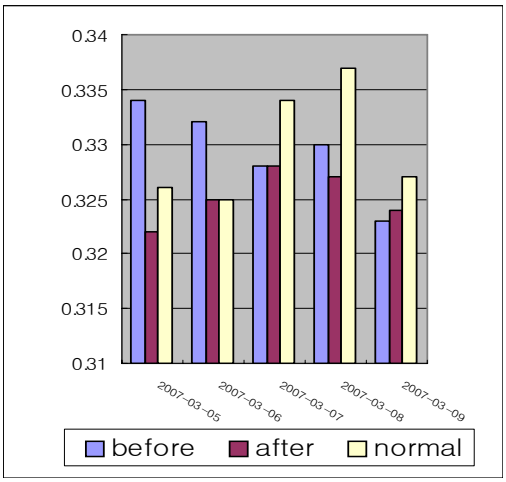

Fig. 7. The effects of the massage on upper arm edema index in cas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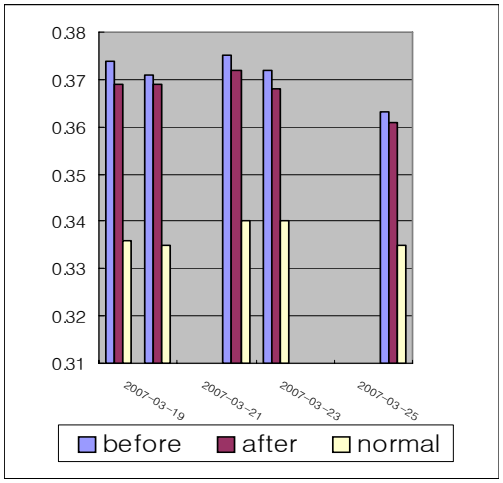

Fig. 8. The effects of the massage on upper arm edema index in case 4.

[증례 4] 조○○은 36세 여자환자로 2006년 5월 1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우측 침윤성 유관암을 진단받고 종양제거수술을 시행 받은 후 2006년6월부터 10월까지 항암 화학요법을 8회 시행 받고 이후로 타목시펜을 복용 중인 환자이다. 2007년 3월 12일 본원에 처음 내원하였으며 내원 당시 우측 상지 부종을 호소하였다. 상기 환자는 아로마 오일을 도포하고 림프배액마사지를 시행하는 시술을 받았다. 다음은 시행 후 자료이다.

상기 환자는 환자의 개인사정으로 5일 연속의 치료방식을 지키지 못하였다. 건측 팔에 비해서 환측 팔의 부종지수가 현저히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마사지 하고 난 후 팔둘레와 부종지수

감소경향을 보였으나 모든 치료에 동일하게 반응하지는 않았다. 다만 전체 5일 중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마사지 전에 비해서 후에 팔 둘레도 감소하고 부종지수도 감소했다(Fig. 8, 9).

Ⅲ. 고찰 및 결론

림프계의 순환이 무너지면 국소적 또는 전반적으로 간질액 축적이 발생하는데 이는 림프부종이라고 알려져 있다[4]. 림프부종 조직은 저 산소 상태로, 간질액이 축적되어 림프혈관과의 거리가 멀고, 림프 청소율이 감소되며, 대식세포 기능이 떨어져있는 상태여서 환자들로 하여금 연부조직감염의 위험성이 증가되게 하는 것으로 개념화되어 있다. 일단 상태가 시작되면 림프부종은 비가역적인 진행을 하는 경향이 있다. 간질액 증가와 만성 섬유화성 변화의 상호작용은 만성질환상태와 본인의 신체적 상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생긴 정신사회적 기능부전과 같이해서 실질적인 기능손상을 나타낸다. 림프부종은 만성적인 경향을 띠며 섬유모세포, 각질화세포, 지방세포를 이차적으로 증식시키고, 피부에서 아교질을 축적시키고 탄력섬유를 파괴한다고 알려져 있다[5].

림프부종의 주된 원인은 암, 암 치료, 림프계의 선천적 비정상, 만성 정맥질환 및 아프리카와 인도 지역에서 유행하는 기생충 감염인 filariasis이다.

림프부종의 발생률과 유병률은 측정 기술과 진단의 다양성 때문에 단언하기 어려우나 유방암 혹은 유방암 치료 이후에 발생하는 림프부종의 발생 빈도는 6~83%이다. 림프부종의 발생률에서 다양한 결과를 보이는 이유로 Deo 등은 림프부종의 평가에 대한 표준화된 지단기준의 부족,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발생의 속성,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임상경과와 검사자의 지식적인 한계 등을 들었다[6]. Moffatt 등은 런던 남서부의 healthcare provider를 조사하여 림프부종의 일반 유병률이 1.33/100,000이라고 밝혔다. 상지의 편측성 림프부종은 유방암 치료를 위해서 액와 림프계에 수술을 받거나 방사선치료를 받아서 손상을 입은 여성들에게서 훨씬 더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7].

림프부종의 임상 증상의 심각성 정도는 다양하다. 외관상 림프부종을 보이지 않는 잠복기 환자들도 신체적으로는 환측 팔의 부종으로 인해 팔의 통증과 운동제한이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해지면 일상적인 활동이나 사회 활동 제한은 물론 환측 팔의 변형으로 인해 우울, 좌절감, 자살 충동 등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게 된다. 특히 종양절제술을 받은 이후로 림프부종이 발생한 유방암 환자의 경우, 대부분은 수술 후 방사선, 항암제 및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됨에 따라 일 년 정도의 추후관리 과정을 겪는다. 일부 환자들은 치료과정을 마친 이후 환측 팔의 경축으로 인해 운동성 제한, 통증, 림프부종, 피로감 등의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암 재발 및 전이에 대한 두려움, 신체상의 변형 등으로 말미암아 불안, 우울, 고립감, 부자연스러운 대인관계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 더군다나 이러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기능 손상은 궁극적으로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림프부종 완화를 위한 최선의 치료법은 림프마사지, 압박붕대, 운동, 피부 관리를 병용하는 복합적인 방법이나 이는 장기적으로 압박붕대나 슬립을 착용해야 하고 전문가의 주기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일단 림프부종이 진행될 경우 이 방법으로도 잘 치유되지 않는다. 따라서 림프부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며 이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유방절제술 환자는 의료인으로부터 림프부종 발생 가능성과 관리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예방과 자기 관리 능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8].

향기요법은 식물의 꽃, 줄기, 잎, 뿌리, 열매 등에서 추출한 정유를 이용하여 호흡기 또는 피부를 통해 흡수시킴으로써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대체요법의 하나이다. 향기요법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대 인도, 페르시아, 이집트의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있고 기원 전 4세기경 히포크라테스는 환자 자신의 자연 치유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식이요법, 일광욕, 마사지, 목욕 등을 조화롭게 실시하면서 각종 질병의 치료에 정유를 이용하였다. 향기요법에는 확산법, 목욕법, 마사지법, 흡입법, 족욕법, 습포법 등이 있는데 특히 마사지시 윤활제 대신 정유를 이용하면 그 시너지 효과는 배가되어 마사지의 심리적·신체적 이완효과 이외에도 정유가 피부에 흡수되어 혈류에 빨리 전달되도록 하는 촉진역할을 하게 된다.

마사지는 근육을 자극하고 이완시키며 혈액과 림프액의 순환을 증진시키고 심리적으로는 긴장, 불안, 우울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간호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 향기요법 마사지는 전신에 적용할 수 있으나 등은 접근하기가 쉽고 짧은 시간 적용으로도 전신의 이완을 신속하게 유도할 수 있어 가장 많이 선택되는 부위이다[9].

최근의 Cochrane review는 향기요법과 마사지를 이용해서 림프부종을 조절하고 감소시키며 암 증상을 완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치료법을 평가했다. 전자는 물리적 치료가 림프부종의 감소 및 조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할 수 없었다. 또한 연구가 규모가 너무 작고, 경과관찰 자료가 너무 적게 제시되고, (유방암에 대한 이차성 림프부종을 가진 여성 같은) 한 모집단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비판하였다. 그것은 림프부종을 관리하기위한 가장 좋은 접근법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 및 무작위 실험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후자도 또한 마사지와 향기요법의 이익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10].

본 증례는 유방암 진단 및 유방암 치료를 받은 후 상지 림프부종이 발생한 4명의 환자에게 향기요법 마사지를 시행한 증례보고이다. 4명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방암 절제술 시행받은 후 림프부종이 발생하여 진행적 경과를 보이며 해당 부위의 이상감각, 일상생활에서의 불편감 야기 및 암에 대한 두려움 심화 등의 증상 호소를 하고 있었으며 상지부종지수 검사상 건측에 비해 현저한 부종지수 상승 소견을 보였다. 5일간의 시술 후 4명의 환자 중 3명에게서 점차적인 팔 둘레 감소 및 부종지수 감소양상을 보였으며 시술하지 않은 건측의 부종지수에 변화가 없거나 증가한 점으로 보아 시술이 부종양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4명 중 1명은 건측이 때로 환측보다 부종지수가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또 1명은 시술을 정해진 스케줄대로 시행받지 못해 증례 결과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하였다.

상기 증례는 전반적인 시술 결과 상 부종이 있는 부위에 향기요법 마사지를 시행하여 부종부위의 둘레와 부종지수에 있어서 감소를 보였다는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시험자 중 일부에서 전형적인 림프부종의 양상에서 수치상 벗어난 소견을 보이거나 피시험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규칙적인 시술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시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림프부종에 대한 진단 기준이 다양하고 의사의 관점에 따라 진단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상기 증례의 환자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못했고, 향기요법과 마사지라는 두 가지 치료를 병행하면서 어느 시술이 이런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림프부종에 대한 관리적 치료에 있어서 림프배액마사지가 최선의 치료법으로 제

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치료에 대한 관찰을 객관적인 면에서 시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더 큰 규모의 연구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여겨진다. 향후 림프부종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 기준이 제시되고 보다 대규모의 연구를 통해서 진일보한 결과가 제시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이경우, 김상범, 윤기성, 곽현, 조세헌, 박정민, 곽희숙, 이종화. 유방암에 대한 액와곽청술 후 림프부종 발생의 위험요인. 대한외과학회지. 2006;71:85-88
2. 정향미, 조명옥. 림프부종 환자의 정서상태와 관련요인. 대한간호학회지. 2006;36:845-846
3. Janet Barclay, Jenny Vestey, Anita Lambert, Claire Balmer. Reducing the symptoms of lymphoedema:Is there a role for aromatherapy? European Journal of Oncology Nursing 2006;10:141-142
4. Olivia Wilburn, Paul Wilburn and Stanley G Rockson. A pilot, prostpective evaluation of a novel alternative for maintenance therapy of breast cancer- associated lymphedema. BMC Cancer. 2006;6:2
5. Olivia Wilburn, Paul Wilburn and Stanley G Rockson. A pilot, prostpective evaluation of a novel alternative for maintenance therapy of breast cancer- associated lymphedema. BMC Cancer. 2006;6:8-9
6. 이경우, 김상범, 윤기성, 곽현, 조세헌, 박정민, 곽희숙, 이종화. 유방암에 대한 액와곽청술 후 림프부종 발생의 위험요인. 대한외과학회지. 2006;71:85-88
7. Janet Barclay, Jenny Vestey, Anita Lambert, Claire Balmer. Reducing the symptoms of lymphoedema:Is there a role for aromatherapy? European Journal of Oncology Nursing 2006;10:141-142
8. 이은숙, 김성효, 김선미, 선정주. 림프마사지 교육프로그램이 유방절제술환자의 상지 기능상태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2005;35:1390-1397
9. 이성희. 아로마테라피마사지가 중년 여성의 우울, 자아존중감, 갱년기 증상에 미치는 효과.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05;8:279-280
10. Janet Barclay, Jenny Vestey, Anita Lambert, Claire Balmer. Reducing the symptoms of lymphoedema:Is there a role for aromatherapy? European Journal of Oncology Nursing. 2006;10:141-142